

나주 중앙로 화강암 도로 ‘애물단지’

특하면 파손되고 한겨울엔 빙판길로 차·보도 구분 안돼 교통사고 위험도

나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수여원을 들여 중앙로 일부 구간 도로의 노면에 자연석 타일을 깔고 있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등 특색있는 길거리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해 신동아 약국~아디다스까지 248m 구간에 대해서 아스콘 노면을 걷어내고 화강

석 타일로 포장하고 있다.

10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업은 당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해당 구간 상인들의 반발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추진되며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화강석 타일로 노면을 포장하다 보니 겨울철 도로 노면이 빙판길로 얼어붙어 행인들의 보행 환경이 도리어

위협받고 있으며 5cm 두께의 화강석이 차량 통행에 따라 깨어지는 등 지반 침하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중앙선을 비롯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관련 차선이 없어 보행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구간에 차량 통행을 가능하도록 변경 추진했을 경우 도로 노면도 별도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미리 방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데도 졸

속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주민 K씨(52·나주시 중앙동)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노면을 자연석 타일로 포장하는 밤상은 근시안적 사고”이며 “겨울철 도로 노면이 빙판길로 얼어붙어 각종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 용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을 감안해 설계됐으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화강석이 깨지는 등 지반침하 현상은 보조기증 등이 튼튼한 믿을 만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동면 농공단지

즉석 식품 생산공장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에 건조밥, 짜장덮밥 등 새로운 방식의 외식산업이 들어선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화순군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주) 푸드원 시스템 현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 푸드원 시스템은 건조밥, 환태국, 비빔밥, 짜장 덮밥 등의 즉석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동면 농공단지 부지 6000㎡에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25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취재본부=정문수기자 unsu@

K-water 전남본부

수자원 전문가 간담회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석천)는 지난 27일 화순 흥수 조절지에서 수자원 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수자원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신대 박성천 교수 등 수자원학회 회장, 교수협의회원 10여 명을 초청해 마련됐다.

이석천 본부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송기기자 song@kwangju.co.kr



“은어야 잘 자라거라” 장흥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1일 텁진강변에서 어린 은어새끼를 방류하고 있다. 군은 1급수 환경지표중인 은어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형 어도시설을 완비하고 지난 1994년부터 14회에 걸쳐 은어 51만마리를 방류했다. <장흥군 제공>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시민 품으로’

시민 품으로 개방키로

나주시는 도민체전 개최 등을 위해 건립했던 각종 스포츠 시설을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지난 4월 완공돼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치른바 있는 종합 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들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조속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종합운동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나 관내 학교체육 육성팀 훈련에 우선 사용하되 기타행사는 천연잔디 보

호를 위해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나주 종합스포츠파크는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웨이트트레이닝센터, 인라인 롤러 경기장 등 802억 원을 들여 4월 초 최종 완공됐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대인동삼일부동산

세정공인중개사

전원주택지 ★급 매★

허가필, 6m도로
남향, 임야 6600㎡
(2000평)
㎡당 20,000원
【위 치】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공장 및 창고부지 ★급 매★】

대형차 진출입 가능
8450㎡
(2770평)
【위 치】

세정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세정이울렛 옆
375-0040
011-606-2231

금당 공인중개사

김정가 이하

- 일률부지, 생활주택 적합 백운동 로터리에서 무진중학교 가는 길 2층 주거지 256평 김정 5억선 매도 3억9천
- 교도건물, 국사당(이미트) 옆 대지 71 건평 2391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포함 은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4천
- 이파티 부지 적합주인 지역, 동립동 삼익아파트 뒤 주거지역 1845평 투자성 좋은 매도 9억2300만원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 153억2천 입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학교 이어먼스 세자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적합 대출6천5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 11억5천
- 금남로 4가구 광주은행 4거리 대지 494 건물은 301평과 680평 2동 있음 공시지가 87억 5천 매도 35억
- 북구 이파티단지 목욕탕, 골프연습장등 대지440 건평 507 공시지가 9억7천 은행5억4천 전세8700만원 시우나, 헬스, 에어밸론은 적합함, 고현도기능 12억5천
- 광주은행 원룸 대지108 건평883 김정11억8천 매도 6억7천
- 황금동 4동 상기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3천
- 주유소 화순읍 땅 1118평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15억천
- 동립동 6파티 예정지역 계획도로 코너 대지 135평 1억6천
- 롯데백화점 부근 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지가 5억 매도 4억5천
- 매도·교환
- 화순군 통영 사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음 1억7500
- 남평읍 고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8백
- 산수동 호남맨션앞 2층주거지 220평 사찰빌모집함 2억7천
- 하남공단 도천동 지연녹지 506평 공공적합 3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 | | |
|------|--|
| 근린시설 |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김정기 2억 6천만 최저가 1억8천만 |
| 농가시설 | · 광산구 비아동 3층상가 대지 73평 건평 131평
농가시설 김정기 3억5천만 최저가 2억 4천만 |
| 단독주택 | · 나주시 금천면 과수원 토지 1,530평
김정기 8천 최저가 1억3천만 |
| 전원주택 | · 서구 벽진동 대지 143평 건평 57평
김정기 1억4천만 최저가 9천9백만 |
| 근린주택 | · 화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6천5백만
·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대지 31평
건평 62평 김정기 1억3천만 최저가 8천9백만
· 서구 회정동 3층 대지 63평 건평 105평
김정기 3억 2천만 최저가 2억 2천만 |
| 다가구 | · 서구 풍암동 3층다가구 대지 61평
건평 112평 김정기 3억 3천만 최저가 2억 3천만 |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가물치·숭어 돌아온 목포 삼향천

친환경 생태하천 변신

시민들 휴식공간 각광

목포 삼향천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돼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3 ~ 2007년 삼향천 총 연장 2323m 중 1단계(104억 투입)로 1900m 구간의 하상을 정비하고 수질 정화시설과 낙하수처리장 하천 재이용수 시설, 산책로, 정자, 분수대, 징검다리 등 친수환경 조성과 시민 휴게 공간을 조성했다. 또 2단계(30억 투입)로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삼향천 하류구간 140m에 대한 친환경적 호안정비, 하상준설, 친수환경 조성, 배수구문 정비, 운동기구 설치공사 등을 준공했다.

현재 삼향천에는 미꾸라지, 봉어, 가물치, 숭어 등 어류를 비롯해



로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자연형 하천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비를 확보해 상류지역 미정비 구간과 임성천의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향천의 오염원 유입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당 1처리분구 하수관과 정비사업 ▲상동초기 우수처리 시설사업 등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삼향천으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담양 ‘딸기 수출 물류센터’ 준공

조직배양서 냉동 보관·선별 가공 일괄 처리

전남도는 담양 수복면에 ‘딸기 수출 물류센터’를 준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국·도비 등 15억원이 투입된 딸기 수출 물류센터는 냉동·냉장 보관, 선별·포장과 가공 등을 위한 최신 위생 설비를 갖췄다.

물류센터 운영으로 딸기 신선도 유지와 규격·표준화를 위한 집하, 규격

배양실과 함께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딸기 조직배양부터 가공·유통까지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됐다.

지난해 16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전남딸기주식회사는 이번 딸기 수출 물류센터 준공으로 올해 63억원(내수 57억원, 수출 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대 소금 품질검사기관 됐다

국내 대학중 처음…관능·정밀검사 수행

목포대학교 천일염 염생식물 산업회사업단(단장 김인철)이 국내 최초로 대학 ‘소금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소금 품질검사기관 지정은 당연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대한염업조합, 목포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총 4곳에서 품질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 사업단은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연구개발 기간동안 축적해 온 소금의 데이터 베이스 및 분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특히 사업단은 품질검사에서 고

시된 11개 분석항목 외에 소금의 품질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소금의 양이온 및 음이온 성분과 염전의 위치요소로서 작용하는 환경호르몬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분석기술을 갖추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도(대촌부곡)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 365,000원).

나대지 급매!!

●서구 금호동 서광주역 나대지 178㎡(54평), 택지개발지구, 매매가 3.3㎡당 160만원

화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동면 혁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자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5만